

<کمپیشن نیوسلیر 1961년 11-12월호>

کمپیشن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 Winter Aid Relief Money) 프로그램 보고서

کمپیشن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 Winter Aid Relief Money)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전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매우 관대한 마음으로, 때로는 희생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작든 크든 모든 선물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 보육원은 가족이 많이 늘어났고, 아직 후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는 받은 모든 기부금과 그 이상을 보냈습니다. 10,000명의 어린이들이 모두 두 벌의 옷을 받으려면 총 1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 뉴스를 받아시는 분들 중에는 천 달러까지 보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다른 분들은 재정에 큰 부담 없이 25달러 또는 50달러를 보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을 베푸셨고, 현재 저희는 이러한 큰 기부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کمپیشن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을 위해 100달러, 50달러, 25달러 또는 10달러의 기부금을 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복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기부금을 1달러, 2달러 또는 5달러 정도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돕고 계실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작은 기부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어떤 것이든 보내기를 주저하거나 미루는 분이 계실지 걱정됩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기부금은 지금 당장, 그리고 항상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직 کمپیشن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 프로그램을 위한 기부금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오늘 보내시면 어떨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운 보육원의 원장님들이 감격하고 있습니다.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가 최근 지원을 약속한 보육원들의 원장님들이 그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스터 크리스천 보육원(Easter Christian Orphanage)의 오재엽(Mr. Oh Jae Yup) 원장님은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친애하는 스완슨 목사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 애산 애육원(Eesan Ae Yook Won)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와 모든 어린이들 그리고 직원들이 모두 목사님께서 하루빨리 저희 보육원을 지원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드디어 저희 보

육원에 대한 지원을 확정하는 편지를 받았으니, 이제 저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이 놀라운 도움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편지를 큰 소리로 읽었을 때 어린이들과 보육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기쁨으로 소리쳤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는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정기적인 지원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구에 있는 한국사무소에 가서 월간 보고서 양식을 받았습니다. 후원자에게 편지를 쓰는 방법, 소포 수령 확인 방법 등 많은 부분에 대한 지시 사항을 들었습니다. 재정보고서는 이미 대구 사무실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편지를 쓰겠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저희의 관계와 교제를 풍성히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파인 트리 벨리 크리스천 보육원(Pine Tree Valley Christian Orphanage)의 광영상 의학박사(Kwak Yung Sang, M.D)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친애하는 스완슨 목사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 보육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목사님의 소중한 편지를 받고 편지를 드립니다. 저희의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저희를 지원해 주신다는 소식에 저와 모든 어린이, 그리고 직원들은 정말 기뻐합니다. 저희 어린이들을 향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지금 소망으로 가득하며 큰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친절과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약속합니다.”

“앞으로 기도와 편지로 교제할 때 주님께서 저희를 풍성히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실행 지침

우리는 이 대규모 기부금의 관리에 있어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만한 점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20-21, 확대번역 신약)

하우스 오브 호프(House of Hope)의 소녀가 쓴 글

얼마 전 저희는 불행한 소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는 하우스 오브 호프(House of Hope) 보육원에서 한 소녀의 멋진 간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소녀가 자신의 간증문이 인쇄된 것

을 보고 스완슨 목사에게 쓴 편지입니다.

친애하는 스완슨 목사님께,

제 간증문이 실린 ¹<컴패션>과 목사님의 친절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놀라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고 저는 그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제 간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스완슨 목사님, 죄로 가득한 길에서 주님께 돌아온 하우스 오브 호프(House of Hope) 보육원 소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보내주신 <컴패션>이 이곳에서 전도하는 데 좋은 수단으로 쓰일 것입니다. 여전히 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소녀들에게 다가가는 데도 사용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노력을 축복하시고 읽는 사람들도 축복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목사님께서 특히 하우스 오브 호프(House of Hope) 보육원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매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소녀들에게 간증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보육원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리며,

한정옥(Han Jung Ok) 올림

특별 중요 공지

거의 모든 후원자가 1년 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후원을 계속하기를 희망합니다. 후원자가 사진과 양육 기록 등을 당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후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희에게 통지하실 필요는 없으며 월간 후원금을 계속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중단해야 하는 경우 서류를 반환해 주셔야 새로운 후원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을 지속할 수

¹<컴패션 뉴스레터 1961년 5-6월호> 참조

있기를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가치가 있습니까?

한국의 거지 소년은 구원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 그 전날

누더기를 걸친 이 어린 소년은 전날 거리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는 부모의 사랑스러운 보살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그 다음날

이제 소년은 깨끗하게 목욕하고, 깨끗한 구호복을 입고, 배불리 음식을 먹고는 먹거리를 손에 쥘 채 환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소년의 삶 전체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저희 기독교 보육원 중 한 곳으로 옮겨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소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보았다(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년은 날마다 후원과 보살핌을 받고, 학교에 다니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영원의 날 - 어디에 있을 것인가?

몇 년 전, 이 불쌍하고 비참한 거지 또한 이 소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그를 거리에서 데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다음날" 그를 보육원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닿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저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수백 명의 새로운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동봉된 사진을 친구, 주일학교, 청년회, 여전도회 등에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한 명 더 후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후원자가 많이 모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독교 도서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보육원의 어린이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직원들 모두를 위해 더 많은 양질의 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에서 집필하고 출판된 38권의 책을 선정했습니다. 그중 17권은 원장님용이고, 21권은 어린이용입니다.

대부분의 책은 한국에서 "어린이들의 목사"로 알려진 2안성진(Ahn Sung Jin) 목사가 집필했습니다. 저희는 오랜 세월 동안 그와 그의 사역에 대해 잘 알고 교제해 왔습니다.

108개 보육원에 제공된, 38권으로 구성된 이 세트(총 4,104권)는 정가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1,080달러입니다. 저희는 이 비용을 다른 기금에서 빌려 왔으며, 각 보육원에서 책을 기증하고 싶어 하는 후원자가 적어도 한 명 이상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목적으로 10달러를 지정하여 보내주십시오. 어떤 보육원을 위한 것인지 반드시 명시해 주십시오. 저희는 해당 보육원 원장님에게 알릴 것이며, 그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혹시 한 명 이상의 후원자가 응답하여 특정 보육원에 10달러 이상이 들어온다면, 해당 보육원을 위해 더 많은 양질의 책들을 구입하도록 추가 금액을 보낼 것입니다. 모든 기부자들은 보육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사진)

위 사진은 웰 오브 사마리아 보육원(Well of Samaria Orphanage)에서 새 책을 들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간증

글: 주수금(Miss Joo Soo Kum)

저는 주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제가 그분을 즉시 받아들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제 마음은 그를 의심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성령과 그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많은 신자들이 부모의 심한 간섭 아래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외동딸이고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라 어린 시절에는 교회에 출석할 것을 강요받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주일학교 시절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렀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값진 사랑을 생

²안성진(Ahn Sung Jin) 목사: 국민훈장을 수상한 아동문학가이며 기독교 교육자였던 안 목사는 서울에서 기독교아동문화관을 창설하고 평생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역에 헌신하였으며, 청소년들과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주일학교 교재와 책 80여 권을 발간했다. 또 평양과 대구, 서울에서 목회했으며, 시애틀에서 2 교회, 캐나다 밴쿠버에서 1 교회를 개척했다. 미국에 온 후에도 서울의 어린이 사역을 이어와 지금은 서울의 파이디온선교회 양승헌 목사를 통해 안 목사가 헌신해 오신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50844).

각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다 돌려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것은 제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겨울방학 때 계명기독교대학교(Kae Myung Christian College)에서 7일 동안 진행된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명한 오 목사님, 구 목사님, 환 목사님으로부터 성경과 교회 내 레크리에이션, 전도, 설교에 대해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기독교 연합회(School Christian Association, SCA)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는 학교 친구들에게 믿음에 관한 지식을 전파함으로써 우리의 활동 기반을 더욱 넓히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으로 선출되자마자 학교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만큼 제 믿음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연약한 저 자신을 발견했지만, 매주 토요일 대학 기독교 연합회(SCA) 모임을 할 때마다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후 저는 주님의 존재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기독교 연합회(SCA)의 저희 학교 대표로 여름 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여름 수양회의 목적은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한국 전역의 대학과 고등학교 간의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었습니다. 1956년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한국의 모든 기독교 연합회(SCA) 대표들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수양회는 많은 외국 선교사들과 한국의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석한 모든 모임 중 가장 축복받은 모임이었고,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양회의 마지막 날 새벽 2시에 저희는 산에서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당시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깊은 감동으로 전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런 날이 오리라고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쳤으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오시도록 간절히 구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을 느꼈고, 처음으로 그분이 나의 힘이자 위로이며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산에서 기도했던 그날 아침보다 더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지만, 구원자이신 주님은 제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저를 붙들어 안아 주시고, 옳은 길로 가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오래전에 영적으로 죽었을 것이며, 주님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현재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며,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제 삶이 끝날 때까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니다.

(주(Joo) 양은 대구에 있는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한국 사무소의 훌륭한 직원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번역 작업과 타이핑을 합니다. 그녀는 야간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라이트 과부의 집(Great Light Widow's Home)에서 보내온 간증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에서 지원하는 11호 보육원)

글: 한국인 친구

6년 전 8월 15일, 이 소년의 젊은 어머니에게 갑자기 재앙이 닥쳤습니다. 당시 그녀는 대구 시내 수창(Soochang)의 초등학교 교사였고, 기차길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광복절 기념 행사를 보기 위해 거리로 나갔다면, 이후 일어난 비극은 그녀에게 닥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날 그녀는 잔뜩 쌓인 빨래를 하느라 집에 있었고, 그때 이웃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급히 달려와 그녀의 세 살배기 딸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기차에 치일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곧장 달려갔고, 어린 딸이 선로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1~2초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광경에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어떤 일이 닥치든 딸을 구하기 위해 자동으로 그리고 필사적으로 선로로 뛰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선로에서 빼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거대한 기차가 딸아이를 덮쳤고, 아이는 전력으로 달리던 바퀴 아래 끼어 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즉사했고 몸은 산산이 찢어졌으며, 그녀는 오른쪽 팔과 무릎 아래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녀가 도립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미 그녀가 이미 죽은 것으로 판단하고 아무도 감히 그녀를 도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장로교 선교(Presbyterian Mission)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당시 병원장이었던 스콧(Scott) 박사가 담담하게 되면서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의술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과다 출혈의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양의 혈액이 수혈되었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태에서 한 생명이 회복된 것은 다름 아닌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체검사 결과 그녀는 임신 5개월의 상태였습니다! 스콧 박사는 산모가 기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으로 낙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녀가 남은 생애 아무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외롭고 힘든 장애의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듯, 아내가 비록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아기를 낳게 하여, 자신이 아이를 키우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고자 했던 것

입니다. 이어진 정밀 검사 결과, 기적적으로 아기가 자궁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 중인 것을 확인하였고, 때가 되어 이 불쌍한 산모에게서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치료비와 입원비는 스콧 박사의 사비로 충당되었고, 이러한 아낌없는 도움과 긍휼 덕분에 어머니와 아기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후 12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면밀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수와 의족을 착용한 어머니와 아기가 병원 문을 나섰을 때,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랑스럽지 않은 기형적인 모습에 남편이 자신과 재회하기를 꺼릴 것임을 강하게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망설임과 고민 끝에 그녀는 수년 전에 남편이 죽은 후 네 자녀와 함께 살고 있던 오빠의 아내에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2년 동안 이미 가난한 이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았지만, 그러한 삶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1957년 11월 그들은 남편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대구 근교의 의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그곳에서 겪은 모든 경험은 모두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해 부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과 아들을 대하는 시부모님의 태도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이 해준 것이라곤 산등성이에 작은 오두막을 지어주고 생존을 위해 가끔 밀과 보릿겨 같은 것을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이 여인은 눈보라가 치는 날씨에도 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장작을 한 움큼씩 모아야 했습니다. 동정과 도움은 오히려 의외의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라가 친 다음 날이면 종종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해 모자가 죽을까 봐 남은 음식과 장작 다발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족과 의수는 오랜 사용으로 쓸모 없어졌고, 여기에 시부모님의 증오와 원망이 냉담으로 바뀌며 그나마 빈약했던 지원마저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무력한 상황에서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생명줄이 연결되기만을 바라며 그녀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1960년 2월 대구로 가서 장로교 병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도 그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고, 다시 새로운 의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사고 당시 살던 곳에서 가까이 있던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 도움을 청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임대할 방과 침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모았습니다. 또한 도립병원의 치과 의사였던 목사님의 아들을 소개하여 그녀에게 일자리도 알선해 주었습니다. 병원에 오는 손님들의 자전거를 지키고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도립병원의 구내에서 장로교 병원의 전 병원장인 스콧 박사를 우연히 만난 것은 최근 어느 날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스콧 박사는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은인이자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한국의 모든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약간의 돈을 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고, 사려 깊게도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여선교사인 프로

보스트 부인(Mrs. Provost)에게 의논했습니다. 프로보스트 부인은 이곳 대구에 있는 한 과부의 집 (Widow's Home)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 모자를 보육원으로 데려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전개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확실히 개입했다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느낌일까요?

우표 수집

사무실과 가정에 들어오는 모든 미국, 캐나다 및 외국 우표를 보관해 주십시오. 현재 사용되는 1 센트, 2센트, 3센트, 4센트 등의 소액의 일반적인 미국 우표는 제외됩니다. 다만 이러한 우표들도 사전 취소된 경우, 즉 우표에 마을이나 도시 이름이 인쇄된 경우는 유용합니다. 그러나 스탬프가 찍힌 봉투, 엽서, 허가증 및 계량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표 가장자리의 구멍을 잘라내거나 우표를 봉투에서 떼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의 예외 없이 봉투가 손상되기 때문이며, 손상되고 잘린 우표는 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분류하거나 종이에서 떼어내기 위해 우표를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우표 주위의 종이를 약 1/4인치 남겨 둡니다. 우표를 봉투에서 잘라낼 때 봉투의 뒷면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집안에 흔히 널려 있는 이러한 우표 수집품을 어딘가로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봉투나 우표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름: S.F. 존슨(Mr. S. F. Johnson),
- 주소: 6340 SW 12th Streets, 웨스트 할리우드(West Hollywood), 플로리다(Florida)

봉투나 소포에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라고 **반드시 표 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기독교 우표 판매업체가 수익금을 보육원 사역을 위해 저희에게 보낼 것입니다.

소득세 정보

여러분의 지역 국세청이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를 면세 비영리 법인으로 등재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국세청 게시판 1959-8의 4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공지

1. 더 이상 "오퍼레이션 헬핑 핸드(Operation Helping Hand)"로 소포를 보낼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제공했던 이 서비스는 중단되었습니다.
2. 어떤 종류의 장난감 총도 한국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수령 즉시 모두 파기됩니다.